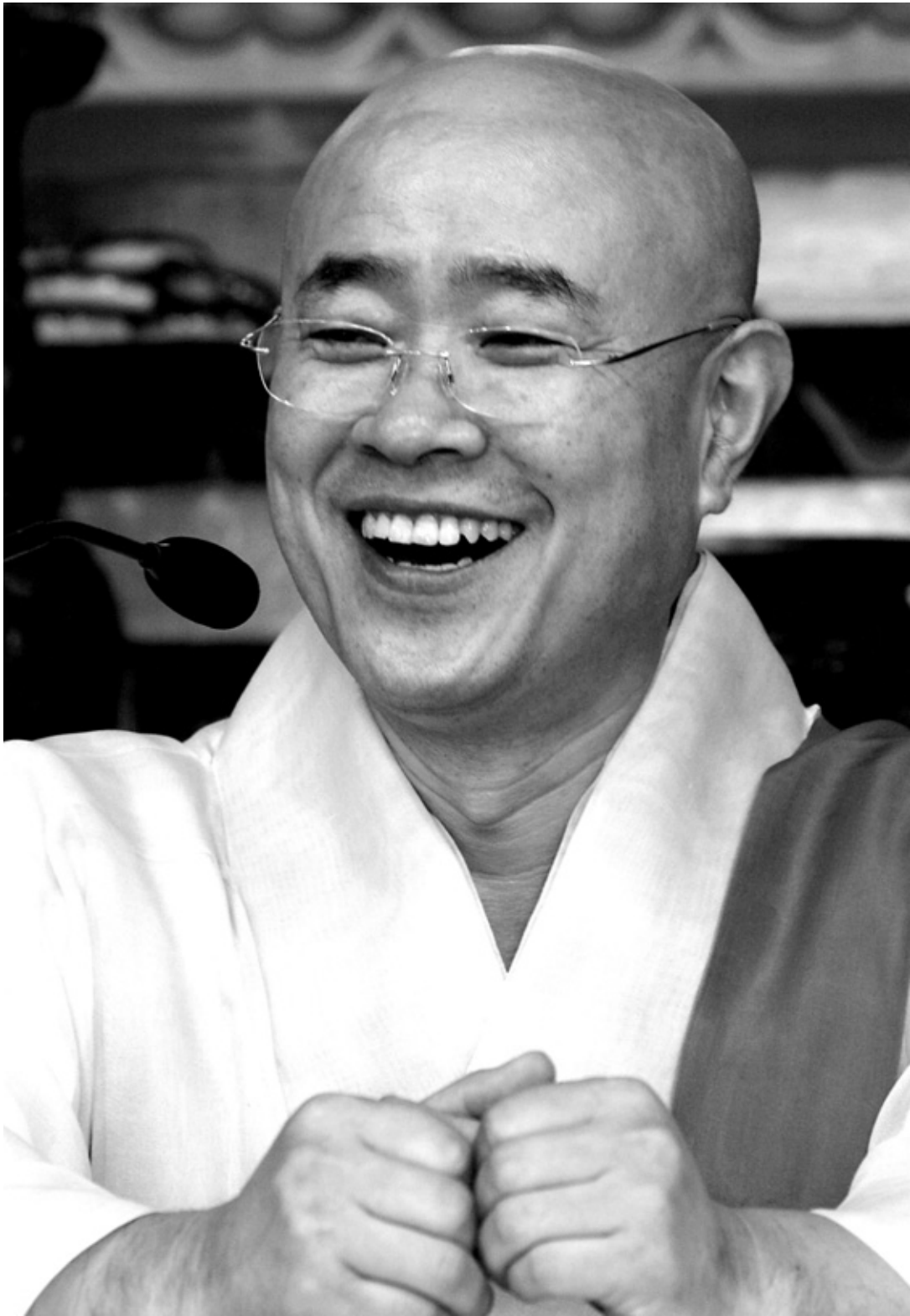


'해주세요' 말고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이뤄진다



원오사 선지식초청법회, 쌍계사승가대학 강사 월호 스님

쌍계사 승가대학 강사 월호 스님(행불선원장)은 7월 7일 통도사 극락암 분원 원오사에서 '삶은 판타지다'를 주제로 법문을 진행했다. 스님은 보시공양으로 복덕을 쌓는 바른 수행을 실천해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는 참된 불자의 길을 걷자고 설했다. 정리=박지원 기자

월호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쌍계사 고산 스님 문하로 출가, 쌍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방선원에서 참선수행, 고산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 받았다. 현재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 행불선원 원장, 불교방송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휴식)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마음의 불사)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문 안의 수행 문 밖의 수행),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본마음 참나) 등이 있다.

부처님 '가장 높은 절대적 깨달음' 얻은 분

"부처님께서서는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시며, 바르게 모두 아시는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을 구축하는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상을 잘 아는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분이시며, 가장 존귀한 분이시며." <범구경> 삼보에 대한 명상

초기경전인 <범구경> 중 삼보에 대한 명상 가운데 부처님을 칭송하는 열 가지 이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래(如來), 응공(應供), 정변지(正遍知), 명행족(明行足), 선서(善逝), 세간해(世間解), 무상사(無上士), 조어장부(調御丈夫), 천인사(天人師), 불세존(佛世尊) 이상 10가지입니다.

'응공'은 응수공양(應受供養)에서 온 말로 깨달음을 얻었기에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정변지'는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를 완전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명행족'은 깨달음의 지혜와 그 실천을 함께 갖추신 분. '선서'는 고통스런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가신 분을 뜻합니다. '세간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이해하신 분이며, '무상사'는 그 어떤 것보다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조어장부'는 대자대비로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신 분. '천인사'는 하늘의 신과 중생의 스승을 의미하고, '불세존'은 불은 깨달은 사람, 세존은 중생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결국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반야심경> 중 '아뇩다라삼박삼보리'는 부처님의 두 가지 이름인 무상사와 정변지를 뜻하는 것으로 부처님이 얻으신 최상의 절대적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삼보란 무엇일까요. '불법승'은 진정한 보배입니다. 붓다(Buddha, 부처님), 달마(Dharma, 가르침), 상가(Sangha, 스님)가 최상의 다이아몬드 귀걸이이며 루비 목걸이이고 진주 반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받드는 불자라면 부처님이라는 목걸이를 하고, 가르침의 귀걸이를 걸고, 부처님의 심대제자를 손에 지니고 다니는 셈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이라도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입니다. 지구상에는 65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는 평생 살아도 부처님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지요.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섬기지만, 불교는 신들이 섬기는 종교라는 설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법당에서 불보살과 부처님의 제자 아라한은 상단에 모셔져 있고, 신은 중단, 영가는 하단에 모시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생전에 마음공부를 잘해 번뇌에서 해탈한 아라한이 되면 신들보다 더 높은 상단에 오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가단에서 신중단, 그리고 신중단에서 상단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 당시 어느 마을에 지독하게 가난해 이름마저 '극빈자'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의 마을에 부처님께서 머물며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도반에게도 권선한다면 복덕이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극빈자도 단 한 명의 스님에게 내일 아침 공양을 올릴 것을 약속하고, 돈을 구하기 위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평소 생계에 전전공공하며 일할 때는 다르게, 더 높으신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복 지을 생각에 운통 환희심으로 가득했지요.

다음 날 관리를 찾아가 스님의 처소를 묻자, 모든 스님에게 백성들이 이미 공양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실망하는 극빈자에게 단 한 분이 아직 공양을 받지 않았으며, 부처님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기에 극빈자는 정성껏 지은 공양물을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부처님은 공양을 받은 후 극빈자에게 축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대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속히 이뤄지기를, 보름달이 가득 차듯이 그대의 바람이 가득 차기를, 그대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속히 이뤄지기를, 소원을 빌면 이뤄지는 마니보주처럼, 그대의 소원이 속히 이뤄지기를, 소원성취하소서."

훗날 극빈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보시의 공덕으로 나라의 고위급 관직은 물론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설화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복덕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공양을 올릴 뿐 도반에게 권하지 않으면 복덕은 있지만 인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남에게는 시주하라고 권하면서 정작 자신은 시주하지 않는 사람은 인복은 있지만 재복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도 저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복도 재복도 따를 수 없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많은 불자들은 부처님 전에 작은 공양을 올리면서 너무 많은 소원을 바라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봅시다. 이번 생에서 많은 보시를 해야 다음 생에 부자로 살 수 있고, 그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며 소원을 구걸하는 마음을 연습하면 다음 생에 극빈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과 '연'이 만나면 소원 성취

<아함경>에서는 인간이 미망(迷妄)과 고통의 존재임을 12인연으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떠한 발원을 세웠을 때 인(因)은 나의 노력, 연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발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이 충실해도 연(緣)이 부실하면 과가 부실하고, 연이 충실해도 인이 부실하면 과가 부실합니다. 인과 연이 모두 충실해야 과(果)가 충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인연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부처님께 기도만 한다면 이뤄지지 않듯,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하게

지켜주시시오' 라고 기도하는 연이 조화를 이루면 뜻이 이뤄집니다.

"~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구걸형 기도와, "~하겠습니다"는 발원형 기도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나투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부처님은 '보신불'이라고 해, 마음 깊이 참나(眞我) 자리에 계시어 색깔이나 모습, 음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신불만 있다면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해, 법당 앞에 풀의 키가 한자나 자랄 만큼 발길이 뚝 끊기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나투신 부처님이 바로 '보신불'입니다. 바로 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님이 그러하네요.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보신불'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심안이 열렸거나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꿈속에서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명반 마음자리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신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신이 나를 대신해서 밥을 먹어줄 수

"부처되게 해 달라며 소원 구걸하는

연습하면 다음 생에 극빈자가 되고 만다
신과 우리는 불법(佛法) 배우는 도반,
굳이 신에게 종노릇 할 필요있나"

도, 잠을 잘 수도, 법문을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이며,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과 미래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정불변의 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 법당에 앉아 저와 마주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는 숙명론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인간 뿐 아니라 신들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신과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도반이니, 굳이 신에게 종노릇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몸 심은 데 콩고도 팔 심은데 팔 나는 것은 인과설에 따른 당연한 이치입니다. 즉, 고정된 나는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나를 만들 것인가는 내가 만들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空) 사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기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의 메시지입니다. 이때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내가 선택해 스스로 채워나가는, 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공 사상은 무아설의 핵심 이론입니다. 성불(成佛)은 행보(行佛)로부터 이뤄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한 순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기에 우리의 삶은 판타지입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 DX-707 스탠드 마이크

• 법당 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상차비 포함)

◆특징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일반형) 175,000원 (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www.hypnos114.com

아주 특별한 영지주의 세계!!

전생·빙의

“한마디 말로三生을 깨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매월 첫주 월요일 개강

-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빙의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었을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형사 악사요...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KBS 무한시대-극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tvN 엑소시스트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커버네티대학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요법의 이론과 실제, 전생·빙의 등

대전(042) 222-0737

대전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도청과 대전세무서 중간지점)